Ⅳ.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유럽의 은행·보험업 겸영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은 복합금융그룹별로 다른데,

① 보험사업 가치가 복합금융그룹내에서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 ② 보험사업 부실이 컸으며 위험전이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 ③ 보험사업 겸영의 자본비용 상승 때문임.

■ 은행·보험업 겸영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될 경우, 겸영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서 업권 분리로 전환되고, 같은 업종내 인수합병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임.

- 복합금융그룹이 매각하고 있는 보험사업을 그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보험그룹이 인수하고 있음.
- 바젤 III가 시행될 경우, 은행·보험 겸영그룹의 보험사업 매각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임.
  -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 보험회사의 집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판매채널 확보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 솔벤시 II 시행에 대비한 유럽 보험회사의 지역·사업다각화 필요성으로 복합금융그룹이 매각하려는 보험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

- 이처럼 보험사업의 가치는 다른 금융업권에는 감소할 것이나 보험회사에는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음.

■ 국내 보험회사들은 글로벌 금융산업 감독규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임.

- 솔벤시 II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글로벌 보험산업 규제는 바젤 III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금융겸영의 비용을 높이고, 자본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금융산업 규제 방향은 상당기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솔벤시 II와 더불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도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험그룹(IAIG)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솔벤시 II의 기본방향과 어느 정도 일치할 것임.
- 바젤 III와 솔벤시 II 등으로 글로벌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전략 전환이 예상되며, 국내 보험회사들도 해외 자산투자전략 수립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바젤 III의 유동성 규제와 솔벤시 II의 시장리스크 반영으로 은행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전략이 수정될 것으로 보임.[23)]

■ 당장은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업권간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

23) 예를 들어 단기채권보다 장기채권에 대해서 신용위험이 요구하는 자본 양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단기채권을 더 선호할 수 있음. Morgan Stanley and Oliver Wymann(2010)에 따르면 솔벤시 II 시행 시, 솔벤시 요구자본(SCR, Solvency Capital Requirement)에 대한 기대수익은 주식 10%, 부동산 10%, 10년 만기 채권 9%, 5년 만기 채권 13%, 3년 만기 채권 15%로 추정되었음.

- 은행 중심 금융지주회사 체계의 겸업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24] 금융업권간 고객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임.
  - 유동성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은행이 국공채 투자 확대와 소매예금 유치 노력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과 판매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은행의 국공채 투자가 확대될 경우, 보험회사 자산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24) 은행 중심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비은행 금융사업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바젤 III 영향평가(QIS 5) 결과에서도 국내 대형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공제항목에 의한 보통주 자본감소 크기가 바젤 II 자본에 비해서 3.2%로 나타나 23개국 평균 -41.3%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바젤 III를 올해 12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나, 유동성비율 규제는 2015년 이후 시행될 예정임.